

함평군, 여름 과일 틈새시장 노린다

미니(애플)수박, 올해 12농가 3.2ha 서 수확작업 크기 작고 껍질 얇아 섭취 간편...높은 당도 자랑

함평군이 신(新)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인 미니(애플)수박이 이달 말 첫 출하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 과일 틈새 시장에 뛰어 들었다.

5월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범재배를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했던 함평 애플수박이 올해는 예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12농가 3.2ha 시설하우스에서 일제히 수확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수박의 4분의 1 크기인 미니(애플)수박(900g~1.5kg)은 한 당당

3~4개까지 수확이 가능해 일반 수박보다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아 섭취가 간편하고 높은 당도를 자랑하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군 읍다면에서 3년째 미니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윤경자씨는 "작년에는 장마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비닐하우스 시설보강으로 더 넓은 면적에서 재배한 만큼 안정적인 소



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미니수박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미니수박을 지역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안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7,312필지에 대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42%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일로음 오피스1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망운면 KTX경유 및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개발수요 등으로 공방 인근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46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동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52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 홈페이지(<https://www.muang.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부정수급 공모 주유업자 6개월 유류구매키드 거래 정지 등 처분

영암군은 관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의심 주유소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

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다수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유류구매키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POS시스템 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수산자원 조성 위해 종자 방류 감성돔 27만 2천 마리, 압해대교 인근 해역으로



목포시가 지난 5월 27일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육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자를 방류했다. 시는 사업비 1억 원으로 매입한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종자 27만 2천 마리를 서남해안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경계 해역에 방류했다. 시는 감소하는 어업자원 증가를 위해 지난 1996년도부터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피볼락, 전복, 넙치, 감성돔 등 총 512만 마리를 방류했다.

감성돔의 경우 위판량이 2015년 13.08톤에 그치던 것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56톤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종자를 방류한 어장 주변에서는 방류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지 않고, 어로 활동 중 어획된 치어는 재방류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종자 방류 사업은 2019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이 2022년까지 자원조사, 경제성분석, 방류지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한빛원전 찾아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

영광군은 지난 5월 27일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와 함께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조획팀과 흥농읍사무소 민원팀은 한빛원전 본부 내 1층 카페에 전입신고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입혜택과 인구늘리기 시책을 홍보하고 주소이전을 독려했다.

인구조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의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알리고 소속 임직원들이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주소이전 서비스를 전개하여, 이날 6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소속 직원들이 영광군 인구감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신규 및 전입 임직원들이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청소년 위한 찾아가는 체력관리 지원 신안체력인증센터, 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PAPS) 측정



신안군체육회(회장 김재원)에서 운영 중인 신안체력인증센터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안군 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PAPS)을 측정하였다.

신안체력인증센터 체력관리 전문인력과 신안군체육회 임직원이 지도 지명고등학교를 비롯한 10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 514명의 학생건강체력(PAPS)을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체력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찾아가는 체력관리지원 서비스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등급이 우수한 청소년에게는 체력인증서(1~3등급)를 발급하여, 지속적으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적절한 운동을 처방하고 체력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안군과 신안체력인증센터는 신안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범군민 건강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체력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